

다시 찾아온 어려움 앞에 함께 힘을 모으자

지난 1년 반 동안 아이러니 하게도 조류인플루엔자 덕택(?)으로 보기 드문 호황을 누리 오다가 최근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했다. 생산량 증가와 닭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닭고기 공급 증가에 닭고기의 계절적 소비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시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조류인플루엔자가 이 어려움에 쐐기를 박을 것처럼 전개된다. 호황이 시작되던 시기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감되는 양상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이 실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육계의무자조금제도, 호황기에 깨져 버린 원종계 쿼터제의 재논의, 병아리 수급과 품질 문제, 질병 만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 유통 개선, 닭고기 브랜드 육성,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논란, 항생제 사용의 오·남용에 대한 논란 등이 다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 모두가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자구의 노력들이다.

그러나 모두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잘못 인식하여 지난 40여년간 반복된 경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해결책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듯하다.

언뜻 이 많은 논란들이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공통점이 흐르고 있고 해

결책에서도 기본적으로 공통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접근하는 방향이나 자세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기회로 인식될 수도 있고 위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닭고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 경쟁력이다. 원종계 쿼터제는 적절한 병아리 공급이 육계 산업의 안정에 가장 핵심이고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되는 것이다. 질병에 대한 것은 생산성에 직결되고 사육 규모나 사육 방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항생제 사용에 관한 논란은 항생제가 해로워서가 아니다. 사용되는 종류가 많다거나 옛날보다 사용량이 많아져서도 아니다. 오히려 축산업과 사람에게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용과 남용을 막고 항생제 수명을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것이다.

사료와 병아리의 품질 문제는 육계산업의 성패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육계의무자조금제도도 이 제도가 육계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대적 요구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질병 자체의 발생 여부나 위험도 보다도 소비자들의 우려가 더 심각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서로가 사태의 심각성을 확대 재생산 한다. 그러다 스스로 깜짝 놀라 자제하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외국의 어떤 전문가는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다음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 우리를 위해서이다. 아니 나를 위해서이다. 어떤 일도 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하는 것이다. 이웃이 덩달아 좋아지는 게 싫어서, 소위 무임 승차가 싫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너무 유아적 접근이 아닐까? 내가 농장 조경을 아주 멋지게 꾸미고 싶은 데 건너편 집에서 함께 보고 즐거워할 것 같아 이를 포기할 것인가? 내 집 앞까지 길을 잘 닦아 놓으면 그 앞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덕 볼까 봐 포기할 것인가?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이면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그냥 하면 된다. 이웃이 그 덕을 본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또한 자연스레 이웃도 참여시킬 수 있고 결국 더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아직 배가 덜 고파서 하는 이야기이다. 아니 배가 너무 부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시의 자세이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보자.

지금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허둥대고, 다시

다른 일이 터지면 허둥대지 말자. 급한 불은 끄고 관리시스템을 세워 일사에서 관리해 나가자. 이는 육계의무자조금제도, 항생제 사용 규칙, 방역관리 프로그램, 원종계 수급 체계 등에 모두 해당된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것도 장기적 안목을 갖기 위한 자세이다. 어떤 제도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일관성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이제 국제경쟁시대이다. 이웃 농장은 경쟁자가 아니라 국제경쟁에 같이 나선 동료이다.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의 생산성과 닭고기 안전성은 수입육과 경쟁하고 소비자의 심리와 싸워 이겨야 한다. 이 상황을 극복해나가면서 우리의 시장 경쟁력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웃을 죽이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좀더 어려워져서 다 정리되어야 해' 라는 말은 농담이라도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자.

내일이니까 우선 내가 할 것부터 찾아 해결하자. 다른 사람이나 정부를 비난하고 있기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순간적으로 책임감을 덜어버린 기분이겠지만 아직 그 짐은 나의 등 뒤에 실려있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동료와 함께 할 방안을 모색하자.

이론적으로 각자 할 일을 알아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어디 세상일이 그리

간단한 것인가? 혼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 더 쉽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업 육계농가수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약3,000호로 보고 있다. 의견을 모으고 합심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는 숫자이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끌어들이자.

중대 사안은 관련 산업, 단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할 일을 하고 동료와 함께 힘을 합하면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기꺼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우리 도움을 받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터졌을 때 공무원들이 며칠 동안 귀가도 못하고 소독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어느 나라 공무원이 심지어 연구직 공무원이 이렇게 나서서 농가를 도와 주는가?

문제 해결 시나 그 후에도 기본에 충실하자.

가장 쉬우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올바른 병아리, 올바른 사료, 올바른약품, 올바른 사양관리가 안전하고도 시장경쟁력 있는 닭고기를 생산할 것이다.

소비자가 우리 닭고기를 선택해야 우리 모두가 살아 남을 것이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해결하여 약간의 개선을 해내기보다 기본에 충실하여 어렵게 얻고 쉽게 잃는 우를 피해야 할 것이다.

사료요구율이 1,674, 1,570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생산성은 놀라운 발전을 했다. 사료요구율을 0.001 수준까지 다루는 것이 그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아직도 계사에서 개구리 울음 소리가 들리고 소독이나 기본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예가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아직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축산 경기는 3~4년 주기가 있다고들 한다. 이 주기는 원래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모두 합심하여 올바른 방법을 취한다. 병아리, 사료, 소독, 백신접종, 사양관리 등 모두가 올바르게 돌아간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이를 망각하고 편법을 쓰게 된다. 이 편법들이 쌓여서 큰 문제로 비화하게 된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3~4년 걸린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주기이다. 경기나 질병 발생 모두 마찬가지이다.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항상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인지라 항상 희망은 있다. 항상 모든 것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 어두움을 지적하기보다는 해결 방안에 집중하면 안 풀릴 문제는 없다. C



장 금 순 상무
바이엘코리아(주)